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결과 보고

1. 안 건 :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방법론과 시사점)
2. 일 시 : 2014.11.07.(금) 09:00 ~ 20:00
3. 장 소 :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 에메랄드 홀(3층)
4. 참석자 : 총 90 명

원외) Andy King, Mark J. Warshawsky, Christine de La Maisonneuve, Thomas Salzmänn, Harada, Yutaka, 서상목, 김용하, 김상호, 허재준, 박능후, 김재희, 이항석, 전병목, 안상훈, 권순만, 김범수, 김수완, 김우철, 김원식, 김재진, 김진, 김진욱, 노용환, 박기출, 박명호, 서문희, 석승훈, 송헌재, 이준상, 이준협, 임병인, 장인성, 정완교, 홍정기 외 45명

원내) 원종욱, 신화연, 백혜연, 정경희, 신정우, 김태은, 연가연, 김선희, 최요한, 손지훈, 정지원, 강지현

<주요내용>

□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행사주제

-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방법론과 시사점

○ 프로그램

- 세션 I .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 세션 II .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Korea

<세부내용>

□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세션 I .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 Projection social security spending in the United Kingdom (Andy King)
- Current Actuarial and Possible Economic Approaches to Long-Range Projections of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Spending (Mark J. Warshawsky)

- Public Spending on Health and Long-term care A projection method and result (Christine de La Maisonneuve)
-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of Germany (Thomas Salzmann)
-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Aging Japan (Harada, Yutaka)
- 세션 II.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Korea
 -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Korea (신화연)

<토론>

□ 현황 및 평가

○ 사회보장재정추계와 관련한 핵심문제

- 고령화 문제 : 고령화 요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나아가 평균수명 및 출산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
- 추계모형의 평가 및 한계 : 장기전망을 위한 모형은 기간에 대해 강건한 구조를 가져야 하고 따라서 모형을 단순화 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당연히 시간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적은 변수를 취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추세변수는 제외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존재.
- 재원조달과정 및 제도 마련 : 사회보장재정추계를 통해 재원마련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게 사회보장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로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사회보장재정을 추계하는 것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모형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제도화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

○ 사회보장 재정 추계의 의의

- 사회보장 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법 모색 : 장기추계에 필요한 방법론을 보강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필요한 것을 유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정책과정에 효율적 자료로 활용 : 장기모형을 통한 장기전망에 대한 필요성으로 사회보장제도 중 연금의 경우 기여와 급여시점에 차이가 있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과 사회가 용인하는 일정수준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을 정책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등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향후 개선점 및 발전방향

○ 추계시 방향론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결과 도출 가능성 증대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함에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문적 접근에만 의존한 인구, 출산율에 대한 낙관적인 가정은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고, 활용 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추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방향론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

○ 사회보장지출의 증감 및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사회보장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GDP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됨.
-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 역시 둔화되는 것으로 보아 사회보장지출이 떨어질 요인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

○ 사회보장 재원 조달 측면에 대한 예측

- 사회보장 재원은 일반적으로 세금, 사회보험료, 국가부채 등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밖에 없는데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지출이 큰 영향을 받음.
- 일본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임에도 국가부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복지지출이 더 통제받지 않고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적으로 국민정서상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지만 복지지출의 증가가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연금 급여 산식 검토 및 보완을 통한 정교화

-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이든 관계없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본 산식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임금수준과 연금의 기여기간(납부기간)만이 고려되어 산식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러한 급여산식으로는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재정을 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도입과정에서 적정소득대체율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전망을 위한 보다 정확한 모형 구축 및 활용

- 너무 단순화된 가정보다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구성함으로써 미래를 추정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함.
- 대체적으로 노인 인구는 늘고 아이는 줄어든다는 표면적인 인구과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

지만, 다양한 저 출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 출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가 있음

- 100세 사회에서도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아직 제도가 미성숙하므로 이미 복지국가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된 나라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쉽게 예상 가능한 제도를 고정화시키고 미래를 전망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생각해보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실제 적용 가능할 수 있음.
- 현금성 복지는 선진국들이 시행했던 것처럼 확장하지는 못해도 사회 서비스를 늘리면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방식의 복지는 많이 늘려야 함.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을 채용한다면 사회서비스 전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내용도 시나리오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통일비용과 관련된 지출은 사회보장 추계시 꼭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으로 이를 빼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적극적인 시나리오 추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필요함.
- 공정한 복지정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계된 수치를 국민들 사이에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복지 정치적 소통과정에서 잘 활용되어야 함.

□ 기타 논의 사항

○ 고령화와 관련하여 의료비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

- 의료비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음. 한국의 보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면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정책변수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
- 일반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의료비의 경우 기술의 발전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음. 앞으로 기술발전에 의한 의료비 상승이 한국에 어떻게 미칠지 그 과정이 중요한데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제시가 필요.

○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과 연금

-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증가율은 연금이 더 크게 나타남.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연금은 성격이 달라서 추계가 갖는 의미도 다르고, 전체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압박이 커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함의도 서로 다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은 비교적 단기계약이고 연금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금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위급성 측면에서 보면 설사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이 연금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정책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시급성에서 보면 연금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율 등을 바꾸는 것이 연금보다 더 쉬움. 실제 과거 10년 사이에 건강보험료율은 50% 이상 증가했음.